

지도 사이트에 사찰정보가 누락된 건이나 조계종 총무원장을 검문하여 종교편향의 불씨를 당긴 것도 아직 기억에 생생하다. 그런데도 G20 정상회의 장소 안 내지도에 조계종의 핵심 사찰인 서울 봉은사가 누락되고, 사찰은 최근까지 일부 기독교 신자들의 예배를 하는 동영상으로 인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의 영상은 '봉은사 땅밧기'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라왔다. 자신들을 '천안인도자학교' 소속이라고 밝힌 신자들은 봉은사 대웅전에서 예배를 보고, 기도를 하는 장면을 담았다. 이들은 "서울 한복판에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면서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봉은사 곳곳의 전경을 보여주며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이란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기독교식 예배를 한 뒤에 "우리가 밟고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보냈다고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봉은사에 이어 동화사 등에서도 땅밧기가 계속되고 KTX 울산역에서는 통도사 명칭 부기를 반대한 울산지역에서도 조직적인 사찰 땅밧기를 했다고 한다. 울산 한 교회의 블로그에는 울산지역 대표사찰인 조계종 정토사와 천태종 정광사, 신선산 보현사, 대원동 극락사의 '땅밧기 예배 사진'과 함께 사찰과 불자들을 '흑암세력'



불자 세상보기

이강렬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종교의 본질 되살필 때

으로 비방하고, 자신들을 '영적군사'로 부르는 글이 올라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구시가 추진하던 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도 사실상 백지화 국면에 접어들었고, 내년도 템플스테이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놓였다고 한다. 믿고 싶지 않은 여러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템플스테이 사업은 우리 문화의 보고인 사찰을 외국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족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취지로 진행되는 국가적 사업이다. 역사문화공원조성 사업은 전통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초조대장경 조성 사찰인 팔공산 부인사 인근에 조성기로 했다. 현존하는 문화재의 대부분이 불교에서 비롯된 것임을 의면하고 싶은지, 불교계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며 그간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해왔다.

표면과 이면이 있는 사회의 무수한 밸런스들은 여러 집적에 의해 유지된다. 밸런스가 무너지면 갈등과 충돌이 파생되게 마련이다. 어쩌면 종교 갈등도 그 무수한 충돌의 파편에 불과한 것이다. 흔히들 소통이 막혔다고 한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 말이 막힌 것이 아니라 종교편향이라는 넘치 말아야할 선을 넘은 것이며, 그에 따라 불교계의 누적된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단순한 종교 갈등이 아니라 열리고 열린 우리 사회의 전방위적 문제점이 종교 갈등으로 표면화된 것이 아닐까.

논란과 관련하여 기독교 내부에서도 자

불교편향은 독단의 탓 내 것 중하면 남 것도 중해 달라도 다양성 존중하는 대화화 종교적 담론 절실

성의 목소리가 높다. 어느 목사는 '신자들이 땅을 밟으면 기독교 땅이 되는가'라며 한국 기독교는 80년대 중반 이후 정치권력과 점목되면서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한다. 종교의 본질은 자기 부정과 자기 비움을 통해 타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분명할 것이다.

다름을 인정하되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사회,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소중하다면 타인의 가치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 종교의 진정한 가르침이 아닌가. 이번 봉은사 땅 밟기 동영상으로 비롯된 일부 개신교 신도들의 그릇된 행동의 자제를 촉구한다. 불교계 내부도 감정적인 대립을 넘어 대화와 종교적 담론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종교편향과 차별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대책도 절실한 시점이다.

사설

G20종교지도자대회가 주는 의미

11월 11~12일 서울 G20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환율 등 경제 문제에 세계 각 나라들이 이합집산하며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을 보여준 G20정상회의의 한편에서는 세계종교지도자들이 서울에 모여 '지구촌 평화를 위한 G20 세계종교지도자회의'를 열었다.

본대회에 앞선 10일, 불교 개신교 가톨릭 유대교 힌두교 등 세계종교지도자들은 철원 DMZ를 방문해 이념으로 갈라진 분단 한국의 치유와 평화를 위해 마음을 모았다. 11일에는 동국대 정각원에서, 12일에는 안양 한마음선원에서 영적 포럼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이틀에 걸친 포럼을 마친 후 채택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더 포괄적인 정책으로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에 평등한 혜택을 주는 것 △경제 발전을 이끌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것

△"환경된 지구 안에서 무한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미래 세대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고려해야 하는 것을 단호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물질과 영혼의 성장에 균형을 맞추고, 안과 밖이 고루 발전하는 것이 인류의 올바른 진화라고 믿는다"고 선언했다. 참다운 삶의 길은 물질과 영혼, 겉과 속, 나와 너의 균형과 조화로운 발전에 있음은 재확인한 것이다.

잘 알다시피 종교는 인류가 추구해야 할 으뜸의 가르침이며, 독실한 종교인들은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한 간곡한 삶을 살고 있다. 가르침이 부족해서 종교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를 삶을 성찰하고 공동선언문을 나아가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살아야 한다.

선원청규는 불교 바로세우는 시작이다

청규란 대중생활을 화합으로 영위하며 불도를 이루기 위한 몸과 마음가짐의 청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규칙이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一日不作 一日不食)는 말로 널리 알려진 백장청규는 청규의 근엄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6년여의 작업을 거쳐 <선원청규>를 발간했다. 11월 1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종정 법전 대승사는 봉정법회에 법어를 내려, "정법을 오래도록 머물게 하고 악을 막는 묘리"라며 청규의 의미를 강조하고 "선원청규는 서래의(西來意)의 당간(幢竿)을 영원토록 펼쳐지게 할 지남이 될지니 수행대중은 이에 수순하며 위법망구할지어다"고 당부했다.

여과 지금이나 청규가 없지 않았다. 규율이 없어 승풍이 흐트러진 것이 분명 아니다. 소임에 주어진 권한을 수행과 포교를 위해 뒷바라지하기보다는 권세를 부리는 일에 쓰인 풍토가 고질화되고, 이해관계에 얽혀 기리기리 무리지어 안하무인하는 풍조와 이를 바라보는 무력감이 합쳐져 청정가풍은 무너졌다든 한탄이 있는 지 오래다.

선원청규를 펴냄으로써 한국불교는 일상생활을 일대 쇄신할 절호의 계기를 만들어냈다. 한국불교를 바로 세우는 대작불사의 시작을 알린 범종소리다. 전국선원수좌회는 <선원청규>의 정착을 위해 '전국선원 실천협의회'를 만들기로 하는 등 실천방안도 마련했다. 새 조계종의 모습으로 회합되길 기대한다.

주말에 시골에 다녀오다 길 옆의 감나무에 주렁주렁 열린 감들을 보다가 무더운 여름을 틈타 무성하게 자란 가을 열매가 가까이 보고 싶어 차에서 내려 곁에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 근처에는 수많은 이름 모를 풀들이 작은 알갱이 크기의 열매를 품고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새삼 자연의 이치를 느끼게 했습니다.

자연의 작은 변화는 인간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떤 열매가 열려야 행복하고 풍요로운 결실을 가져올까요? 가을에 풍성하게 열린 과일나무 아니면 길가에 이뉘없는 풀한포기의 알갱이 일까요?

우리 같은 세속의 인간들은 풍성한 과일 열매처럼 보다 큰 집, 돈 많이 주는 직장, 큰 돈, 주식 폭등, 좋은 대학 입학 등 모두들 풍성하고 화려한 과일이 열리기만을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과일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못하거나 썩거나 태풍으로 떨어지면 대단히 실망하고 분개하여 나무를 잘라버리거나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생에서도 안분지족을 모른 채 노력한 만큼의 대가나 희망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해 인생을 포기하거나 지나친 탐욕과 집착에 얽매어 문제가 됩니다.

<처치경(處處經)>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스님이 그 스승과 함께 길을



사부대중 칼럼

신병현

대전 보문중 교법사

가을은 '버림'의 계절

가다가 땅에 금덩이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자 말없이 이를 주워 가져갔다. 그리고 스승에게 "빨리 가십시오. 여기는 무인지경이라 매우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라고 하니, 스승은 즉각 답하기를 '네가 금덩이를 가졌기 때문에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것이니 그 금덩이를 버려라. 그러면 다시는 무서울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스승의 말씀을 들은 사미는 금덩이를 버리고 나서 스승에게 절을 하고 '제가 어리석어 아는 것이 없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그 금덩이를 버렸더니 정말로 무서운 생각이 안납니다'라고 말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입니다. 이 탐욕은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아 결국 지혜로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학교에서도 자신의 욕심대로 안 되면 스스로 화가 치밀어 얼 굴부터 빨갱게 되어 주변의 친구 뿐만 아니라 선생님, 부모님에게까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보고 합니다. 이렇게 탐욕으로 얼룩진 마음은 안분지족을 모르고, 무조건 취하고 소유하려는 망상으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또한 잘못된 것은 지나친 자기 욕심 때문 입에도 불구하고 평생 남을 원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얻으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방법과 수단이지, 궁극적 목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마치 길가에 있는 풀 한포기의 작은 알갱이가 먹음직스럽고 과일 만큼 훌륭하듯이 말입니다.

갖고 싶은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정당하

가장 큰 적은 자신의 탐욕 갖고 싶은 것 노력해서 정당하게 취하고 버릴 것 욕심말아야

게 취하고, 버려야 할 것은 욕심 내지 말고 그 즉시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여 자신을 병들게 하고, 사회마저도 부패시켜버립니다.

가을이 결실과 수확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버림의 계절임도 알아야 합니다. 탐욕의 집착을 버리면 고통의 윤희를 벗어날 수 있고, 탐욕을 버리면 곧 도(道)를 얻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범정 스님이 우리에게 남긴 말씀이 떠오릅니다.

"나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 또는 재산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과 일치되어 있는가이다. 행복은 결코 많고 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인사총괄부 실시간 뉴스 토크뉴스 불교포털 부디피아 소평을 전문상담팀	www.hyunbul.com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www.hyunbulshop.com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사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현대불교 지사안내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4-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한국근본불교조계종 부산종무원

빙의, 퇴마, 구병시식, 천도재 전문도량

- 빙의(귀신병), 신들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병원치료가 길고 잘 낫지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많은 분.
- 사업이나 매매가 마음대로 안되는 분.
- 어떤 병이든지, 어떤 사업이건 전화상담만으로 속 시원히 알수 있음.

검증된 기술, 오랜 경력, 성직자의 양심으로 교육, 퇴마하는 도량 "선봉사" 모든 검색창에서 "현오스님"이나 "선봉사"를 클릭하세요.

퇴마사 최면사 교육

정규교육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선봉사

부산광역시 북구 회명동 1388-8 / 대표전화 051)362-0666 / 상담 및 예약 010-5656-3915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뒤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태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대 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르라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이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현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